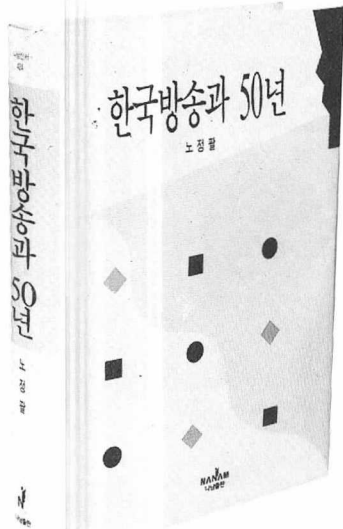


애환 많은 방송 반세기의 발자취

《한국방송과 50년》 펴낸 노정팔씨



“방송과 인연을 맺고 외길 인생을 걸어온 지 어느덧 50년이 됐습니다. 어떻게든 정리를 해보고 싶다는 욕심에 시작한 작업이었는데 만만치가 않더군요.”

일제로부터 해방되던 해에 방송사에 투신하여 서울중앙방송국 PD, 서울국제방송국 국장,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등을 거치면서 94년 은퇴하기까지 반세기를 방송가에서 보낸 노정팔씨(77)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사건들을 모아 책으로 펴냈다.

“방송은 수많은 사람들의 땀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어느 한사람의 역할이라도 무시되면 좋은 방송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한사람 한사람이 한국 방송의 역사를 창출해냈다는 사실을 지적하

고 나서 노정팔씨는 그들의 행적이 기억 저편으로 잊혀져버리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피력한다. 그들이 곧 방송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 안타까움은 이 책을 내게 된 직접적인 동인으로 작용했다.

“예전에는 전문방송인이 아닌 저명한 문학인들이 방송에 관여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PD는 대부분 직접 써야했구요. 역할에 따라 인력구조가 세분화되어 있는 오늘날의 방송에 비추어보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열악한 시설과 장비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이루어졌던 당시 상황을 후대에 남기고 싶었다는 노정팔씨는 방송가에서 만났던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과 그들이 겪은 애환을 세밀한 부분까지 책에 수록했다. 담배꽂초 하나 때문에 일어났던 화재, 허락없이 옮겨놓지도 못하게 했을 만큼 귀했던 마이크, 한국전쟁 중에 해상에서 이루어진 이동방송, TV방송이 처음 시작하던 때의 웃지 못할 비화 등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정리하여 책으로 완성하기까지 2년 6개월이 걸렸으며 분량도 700면에 달한다.

“무엇보다도 남아 있는 자료가 거의 없어서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쓰게 되더군요.”

기록을 남겨 놓지 않는 방송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활자화되어 남아 있는 자료라고는 연감이 고작이었고 노정팔씨는 대부분 자신의 기억에 의존해야만 했다. 56년 방송관리계장으로 월간지 《방송》의 제작에 관여

“방송은 수많은 사람들의 땀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그들 한사람 한사람이 한국 방송의 역사를 창출한 것입니다. 기록을 남겨 놓지 않는 방송매체의 특성으로 활자화돼 있는 자료라곤 거의 없어 경험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썼습니다.”



노정팔씨.

하면서 자료의 필요성과 그 허술함을 이미 절감한 후 틈틈이 메모를 남겨두었고 그 메모가 이번 저작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자료가 귀해 사망으로 수소문하다보니 해방전의 방송사(放送史)에 대한 자료가 일본에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일본까지 가서 자료를 구해와 참고하기도 했다.

“자료가 거의 없는 까닭에 당시 방송에 몸담았던 사람이 아니면 쓸 수가 없는 글입니다. 이대로 영원히 묻혀버릴 지도 모를 방송사(放送史)를 쓰고 있다는 소명의식을 느꼈습니다.”

그 소명의식은 노정팔씨에게 방대한 작업을 해낼 수 있었던 힘이 되어주었다. 그는 애초 두권 분량으로 쓸 계획이었는데 TV방송의 경우는 88올림픽까지, 라디오 방송의

경우는 73년 방송공사 설립 당시까지만을 기록함으로써 한권 분량으로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그 이후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서 자신이 아니라도 누군가가 써내게 될 것이므로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그의 관심사는 요즘 ‘고향’으로 옮겨가 있다.

함경남도 갑산에서 출생한 그는 고향의 독특한 풍속, 역사, 언어, 지리를 책에 담아내고 싶어한다. 이들 역시 그가 써내지 않으면 영원히 묻혀버릴 것들이기에 생전에 반드시 써내야 한다고 거듭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고향에 못가보는 사람들에게 기억을 더듬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는 그의 말에 가슴아픈 여운이 남는다. —한동림 기자

계몽 철학: 그 이론적 토대

1. 코퍼 지음/최인숙 옮김/224면/7,000원/서광철학강의 1

스스로를 이성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이전 사유로부터 근본적으로 탈피한 계몽 철학적 사유의 근본 특성을 다루고 있는 철학 입문서 이론 철학적 측면에서 계몽 철학이 성립하는 근거 및 인식론적 과정을 전개해 나간다.

해석학의 이해

E. 후프나겔 지음/강학순 옮김/224면/7,000원/서광철학강의 2

최근의 학문적 담론에서 자주 거론되기는 하지만 아직 그 개념이 모호하고 다의적인 ‘해석학’의 여러 입장들을 체계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철학의 근본 토대로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을 제시한다.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M. 하이데거 지음/이기상 옮김/192면/6,000원

형이상학은 강단 철학의 한 분과가 아니라 인간 현존재에서 일어나는 근본 사건으로서 인간 현존재 그 자체라고 단언하면서 형이상학에 대한 “새로운” 사유와 평가를 제시하는 하이데거의 원전. 독-한 대역판으로 출간되었다.

설명과 이해

G.H. 폰 리히트 지음/배철영 옮김/256면/8,000원

철학의 전통적인 여러 주제들 가운데 인과성, 행위, 지향성, 실천적 추론, 목적론 등을 분석 철학의 방법을 동원하여 철학하게 논의하고 있다. 분석적 방법으로 철학하는 모습의 전형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음미할 수 있게 해준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업부 924-6161 편집부 924-6165 팩시밀리 922-4993